

“전 남편 살해 치밀한 단독 계획 범행”

제주동부서 11일 수사결과 발표... 고유정 검찰 송치 살인→ 시신 훼손→ 유기... 정신감정은 하지 않기로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해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검찰에 넘겨진다. 살인은 우발적이었으나 고씨의 주장과는 달리 경찰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계획적 범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을 열고 고씨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에서 9시16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소재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제주와 경기도 김포시에서 두 차례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에서 훼손한 시신은 28일 오후 9시30분쯤 완도행 여객선 위에서 7분간 바다로, 김포에서는 31일 새벽 3시12분부터 8분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쓰레기장에 담아 유기했다.

고씨는 “강씨가 성폭행을 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

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고씨가 제주에 오기 전 날인 지난달 17일 거주지인 충북 청주시에서 20km 떨어진 충북 청원군 소재 병원에서 수면제 성분이 들어 있는 ‘졸피뎀’을 처방 받아 구입한 점, 펜션에 들어가기 나흘 전인 22일 오후 11시쯤 제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칼과 표백제(락스), 도마, 고무장갑, 종량제 봉투 등을 구입한 점 등에 미뤄 살인부터 시신 훼손, 청소, 유기까지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봤다.

실제 강씨의 혈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검사한 결과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으며 고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를 통해 ‘니코틴 치사량’, ‘살인 도구’, ‘시신 유기 방법’ 등을 검색해 증거물 총 89점이 압수된 상황이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고씨가 재혼한 남편을 신뢰하고 완벽한 가정을 꿈꾸고 있는 상황에서 면접교섭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장이 11일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권 문제로 6살 난 아들을 강씨에게 보여주게 되자 강씨를 자신의 결혼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찰은 공범 없이 고씨가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씨는 체포 당시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체격이 작은 여성(160cm·50kg)이 체격이 큰 남성(180cm·80kg)을 살해했고 피해자 시신을 훼손해 옮긴 점 등에 의문을 갖고, 공범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졸피뎀 구입, 휴대전화 사용

내용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공범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건에 투입된 프로파일러의 감정에서는 고씨가 ‘사이코 패스’ 등 정신적 질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씨에 대한 정신 감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박기남 동부서장은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 발견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고씨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증거 보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경찰이 밝힌 고유정 20여일 행적

가사소송 이후 범행 결심하고 준비 착수 5월 25일 밤 졸피뎀 먹인뒤 전 남편 살해

경찰은 고유정(36)이 재혼한 현 남편과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다. 5월 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이뤄진 가사소송(면접교섭권)을 통해 강씨에게 6살 난 아들을 보여줘야 될 상황에 놓이자 강씨를 ‘방해 요소’로 판단,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것이다.

범행 준비는 바로 다음날부터 이뤄졌다. 5월 10일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졸피뎀’, ‘니코틴 치사량’, ‘살인 도구’, ‘시신 유기 방법’ 등을 검색했고, 이를 토대로 일주일에서 20km 떨어진 청원군 소재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구입했다.

18일 제주로 입도한 뒤 고씨는 친구와 술자리를 갖는 등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사람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범행을 저지르기 나흘 전인 22일 오후 제주시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와 표백제(락스), 청소용 솔, 고무장갑, 종량제 봉투, 부탄가스 등 범행에 사용할 물품을 구입했다.

범행 당일인 25일 오후 5시 고씨는 아들과 강씨를 태우고 제주시 조천읍 소재 펜션에 입실한다. 강씨의 차량은 펜션에 가기 전 인근 마트 주차장에 세워놓게 했다. 범행은 이날 오후 8시에서 9시16분

사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며, 고씨가 강씨에게 졸피뎀을 몰래 먹여 정신이 혼미해지자 3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실제 펜션 내부 천정과 벽에는 다량의 혈흔이 발견됐는데, 방어를 하면서 생긴 흔적은 식별됐지만 몸싸움을 하면서 발생하는 혈흔은 확인되지 않았다.

시신을 1차 훼손한 이후 27일 오전 11시30분쯤 펜션에서 퇴실한 고씨는 제주 시내 모텔을 잡고, 병원에도 들러 흉기를 휘두르다 다친 오른손을 치료했다. 다음날 오후 8시30분분 완도행 여객선에 탑승한 고씨는 미리 제주에서 구입한 종량제 봉투와 여행용 가방에 담겨진 시신을 바다에 7분간 유기했다.

29일부터 31일까지는 김포시 소재 가족 소유의 아파트에서 유기하지 못한 시신을 2차 훼손한 뒤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인전에 들러 사다리 및 방진복, 커버티에이프, 덧신 등을 샀는데, 경찰은 훼손 과정에서 발생하는 혈흔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고씨는 6월 1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카레를 끓이고 있는 나를 강씨가 성폭행하려 들자 흥기를 휘둘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음주측정 경찰관에 물 뺀은 20대 벌금형

제주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물을 뺀은 2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2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3시 20분쯤 제주시 연동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했다. 이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곧바로 후진을 한 뒤 차량을 세웠다.

하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이 다가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3차례나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경찰관을 향해 뺀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지만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장애인 채용박람회 발길 북적 11일 제주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강당에서 열린 제5회 장애인 채용박람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 현장면접을 보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강희만기자

도, 여객선 5척 특별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10~12일 가파도 및 마라도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5척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내용은 여객선 승·하선 시설

및 선박 내부 편의시설 안전상태, 교통약자 통행불편 여부, 불친절 사례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여객선 운항 및 여객 편의시설 이용 실태 등을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휴가철 안전관리와 편의를 도

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가파도와 마라도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이용객은 전년 41만 9895명에서 올해 50만 1572명으로 8만 1677명(19%)이 증가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삼도2동 단독주택 화재로 1명 숨져

11일 오전 1시37분쯤 제주시 삼도2동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여분만에 진화됐다. >> 사진

이 화재로 미쳐 대피하지 못한 이모(57)씨가 숨지고 주택 2개동과 인근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가 소실되는 등 36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당시 주택에는 숨진 이씨를 비롯해 5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4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담뱃불에 의한 발화로 보고 있으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현석기자

주차된 트랙터서 화재

11일 오전 4시36분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한 보리밭에 주차돼 있던 농업 트랙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0

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트랙터 1대가 전소되고 베일러 1대가 소실되는 등 67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김현석기자

그랜드보청기

국회보청기 특별 할인행사!!!

방문고객 배터리 25,000원 → 15,000원

다양한 행사에 샴촌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최대 60% 파격 할인

- 보청기 보상판매 서비스
- 무료 방문 상담 및 지원 서비스
- 고급 모델 1+1(원플러스 원 행사)
- 착용 보청기 A/S 및 무료청력검사
-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안내
- 청각장애인 보조금 상한선 131만원 안내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064-725-9275

시외버스터미널 동쪽 7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빠른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시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사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1, 3년생)

- 유리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굴
- 한라봉 • 히로시마7호
- 블러드 오렌지(다로코)
-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당도 16브릭스 이상)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증묘

064-733-7005, 010-6677-5753

고개속인 남성들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20627-중-30735호

발기부전치료를 쓰이는

※ 원터치자동약물주입기의 장점 ※

- ▶ 사용 및 휴대가 매우 간편하고 원터치로 약물이 주입되어 통증 및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 ▶ 기기에 쓰이는 치료약물은 고품질, 당뇨, 노화에 의한 발기부전 및 임, 수술 후 발생한 발기부전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 ▶ 약물주입시 대부분의 남성들이 발기가 이루어져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원터치 자동주입기에 넣어 사용하는 발기부전치료약물은 부적절하게 사용시 발기부전으로 지속되는 부작용이 있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은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기부전클리닉 ▶ 조류약물주입법
▶ 전립선클리닉 ▶ 남성회성기질환 ▶ 요로결석

※ 남성고민 상담 ※

연세포르테비뇨기과

064) 724-7575

터미널 맞은편 제주은행 2F